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하문선(河文善)*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상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적용한 결과 첫째, 최종모형에서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의했으나, 상대방효과에서는 어머니만 유의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어머니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등가제약을 가하여 부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각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상대방효과와 자기효과 간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가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과 양육경험 및 아동의 문제행동 간 상호관련성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가족역동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맞벌이 부모, 일-가족 갈등, 양육스트레스, 아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APIM

I. 서론

최근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맞벌이 부부들은 일과 가정 두 영역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업에 부딪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다중역할의 경험은 남녀 모두에게 갈등 혹은 스트레스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는 이제 현대사회의 맞벌이 부부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최윤정, 김계현, 2009; Gilbert & Kearney, 2006; Zamarripa, Wampold, & Gregory, 2003).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일과 가족 두 영역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고 두 영역의 연결고리를 밝히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이 활발해졌다(Greenhaus & Powell, 2006; Zhang, 2016). 관련 연구들은 개인이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물리적·시간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역 모두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Greenhaus & Beutell, 1985). 즉 연구자들은 일과 가족 두 영역이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호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의 형태를 지닐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Edwards & Rothbard, 2000). Greenhaus와 Beutell(1985)는 일과 가족 두 영역에서의 역할이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러한 역할 간 갈등을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그동안 일-가족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 변인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으며, 특히 일-가족 갈등이 우울, 불안, 알코올남용, 삶의 질, 생활만족, 직업만족, 이직, 소진, 결혼만족, 배우자지지, 부모역할만족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이다운, 2003; 한영주, 박지아, 손난희, 2013; Allen, Herst, Bruck, & Sutton, 2000; Cooklin, Martin, Strazdins, Nicholson, & Westrupp, 2014; Frone, Russell, & Barnes, 1996; Geurts, Kompier, Roxburgh, & Houtman, 2003; Lenaghan, Buda, & Eisner, 2007; Schieman, McBrier & Van Gundy, 2003).

그러나 일-가족 갈등에 관한 이들 연구들은 주로 개인 혹은 부부의 부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비판받아왔다. 연구자들은 일-가족 갈등이 부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아동의 관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아동의 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atias et al., 2017; Wall, Leitao, & Ramos, 2011). 부모가 일과 가족 관계에서 역할 갈등을 크게 경험할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되며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자녀에게 전이되어 자녀의 부적응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Greenhaus & Beutell, 1985).

특히 부모의 일-가족 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은 그 관계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 경험이 관련되기 때문이다(Halpern, 2005; Michel, Kotrba, Mitchelson, Clark, & Baltes, 2011; Vieira, Matias, Ferreira, Lopez & Matos, 2016). 관련 연구들은 일-가족 갈등의 경험이 부모의

에너지와 시간, 정서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양육에서의 목소리 톤, 반응성, 훈육방식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아동양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는데(Costigan, Cox, & Cauce, 2003; Goldberg, Clarke-Stewart, Rice, & Dellis, 2002; Greenberger, O'Neil & Nagel, 1994; Repetti, 1994), 특히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증가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박주희, 2015; Allen et al., 2000; Guelzow, Bird, & Koball, 1991; Shreffler, Meadows, & Davis, 2011). 부모가 일-가족 갈등으로 인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느낄수록 부모-아동 간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결국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되는 등 부적응이 초래되는 것이다(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Baker et al., 2003; Briggs-Gowan, Carter, Skuban, & Horwitz, 2001).

이와 같이 최근 부모가 경험하는 일과 가족 간 갈등은 아동문제와 관련되어 중요한 학문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Matias et al., 2017)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수행되어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일-가족 갈등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서구사회에서의 경험들이 동양사회에서 유사하게 경험되어질 수 없다. 한국과 같이 동양사회의 경우 서구사회 보다 더 강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을, 남성의 경우 일에서의 성취를 더 우선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김남숙, 정진경, 박광배, 1997; Buehler & O'Brien, 2011).

특히 최근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편중되어 있었다(Cinamon, Weisel, & Tzuk, 2007; Eby, Casper, Lockwood, Bordeaux, & Birinley, 2005). 그러나 최근 맞벌이 부모 대상의 연구에서는 어느 한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부모 간 상호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연은모, 최효식, 2018; Cinamon et al., 2007; Vieira, Matias, Lopez, & Matos, 2016). 왜냐하면 일-가족 갈등의 문제는 개인 내에서 발생하는 영역 간 전이(spillover)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 간의 교차전이(crossover) 또한 발생되기 때문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일-가족 갈등이 배우자의 양육 경험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정에서의 경험에 따라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Belsky, Youngblade, Rovine, & Volling, 1991; Cummings, Merrilees, & George, 2010; Vieira et al., 2016).

연구자들은 부모 등 커플 간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enny,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IM을 적용하여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상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둘째,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아버지효과와 어머니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셋째,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아버지효과와 어머니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넷째,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일-가족 갈등과 아동문제의 관계

일-가족 갈등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 혹은 부부의 부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Cooklin et al., 2014).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부모의 일과 가족 간 전이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Bronfenbrenner & Morris, 1998) 부모의 일-가족 갈등은 아동발달과 적응의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한다(Lim & Kim, 2014). 연구자들은 부모가 일과 가족 관계에서 역할 갈등을 크게 경험할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되며 이러한 부정적 심리상태는 자녀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Greenhaus et al., 1985).

이와 관련하여 Matias와 동료들은(2017) 부모의 일-가족 갈등은 부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역동적 측면에서 부모-아동의 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동의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몇몇 연구에서도 부모의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신체화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적·과격적 행동, 우울, 불안 등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Buchanan, 2013; Vieira et al., 2016). 특히 최근 변화된 사회에서 부모는 가족생활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대한 상호 파트너이기 때문에(Casper, Eby, Bordeaux, Lockwood, & Lambert, 2007)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해졌다.

2. 일-가족 갈등,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문제의 관계

아동발달에 있어서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아동의 외체

계인 부모의 일과 가정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Bronfenbrenner, 1989; Larson & Almeida, 1999). 특히 이 관점에서는 일-가족 갈등을 일이라는 미시체계(microsystem)와 가정이라는 미시체계(microsystem) 간 전이되는 상호작용으로 간주하며(Greenhaus & Beutell, 1985) 이것이 아동의 미시체계의 특징인 부모양육과 관련되어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이에 연구자들은 부모의 일과 가정, 아동 간 관계 연구에서 일과 가족 간 균형을 유지하고 아동발달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ottfried & Gottfried, 2006). 관련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일-가족 관계에서의 경험이 양육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Crouter, Bumpus, Head, & McHale, 2001; Michel, Kotrba, Mitchelson, Clark, & Baltes, 2011; Stewart & Barling, 1996; Vieira, Matias, Ferreira, Lopez & Matos, 2016), 특히 일-가족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Halpern, 2005). 즉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은 원만한 부모역할 수행을 방해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Crouter et al., 2001; Repetti, 1994; Shreffler et al., 2011), 이러한 관계가 아동문제를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특히 부모의 양육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Shreffler et al., 2011).

일-가족 갈등이 직접적으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Guelzow et al., 1991) 양육에 대한 역할수행을 방해하여 결국 아동문제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이선애, 2012; Wieland, Green, Ellingsen, & Baker, 2014). 연구자들은 부모가 일-가족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양육스트레스 또는 양육으로 인한 피로와 시간 압박을 경험하게 되어(박주희, 2015; Allen et al., 2000; Shreffler et al., 2011)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Baker et al., 2003; Briggs-Gowan et al., 2001).

3. 일-가족 갈등에 대한 성차 연구

일-가족 갈등은 성역할긴장이론(Pleck, 1977)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일과 가족의 역할체계가 비대칭적(asymmetrical)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 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남성은 연속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여성은 동시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역할 간 갈등에 직면할 경우 여성은 더욱 역할 간 긴장을 느끼고 갈등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일-가족 갈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Aryee, Srinivas & Tan, 2005; Duxbury, Higgins, & Lee, 1994; Nielson, Carlson, & Lankau, 2001) 이후 연구들도 부모 중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일-가족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lair-Loy & Wharton, 2004)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성차는 일-가족 갈등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였으며 특히 여성의 중요함 이슈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 십년 동안 맞벌이가정 아버지들도 일-가족 갈등의 증가를 가장 크게 경험하였으며(Nomaguchi, 2009), 남성이 오히려 여성보다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Ford, Heinen, & Langkamer, 2007).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남성이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이 여성이 경험하는 수준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Hill, Hawkins, Martinson, & Ferris,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차 연구들은 여전히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여(Cornwell, 2013) 비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일-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의 크기 자체를 비교하는 것보다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연구자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 영향을 미치며(Ford et al., 2007), 일-가족 갈등이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Duxbury & Higgins, 1991). 또한 다른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과 자녀 양육행동이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아버지의 경우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Cinamon et al., 2007). 한편 최근 부모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이 양육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머니보다 광범위하게 연구되지 않았다(Cinamon et al., 2007; Duxbury & Higgins, 2001; Eby et al., 2005). 따라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양육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 가족연구에서 점점 중요해졌다(Shreffler et al., 2011).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Kerr & Bowen, 1988), 여성은 남편을 통하여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Vieira, Matias, Ferreira, Lopez, & Matos, 2016; Volling, Kolak, & Blandon, 2009). 몇몇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아버지의 양육 경험을 통하여 아동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들의 경우 어머니와의 교차전이를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Belsky et al., 1991; Thompson & Walker, 1989). 또한 다른 연구들은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이 자신의 양육경험에 의해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경우 일-가족 갈등이 아버지의 양육경험에 의해 아동의 외현화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부모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Vieira et al., 2016).

따라서 일-가족 갈등과 관련된 가족 간 상호의존적 관계에서는 개인 내에서 발생하는 영역 간 전이(spillover)뿐만 아니라 개인 간 발생하는 교차전이(crossover)에 대한 연구까지 확대되어 더 연구되어야 한다. 최근 맞벌이 부모와 같이 커플 간 관계의 이해에 있어서는 상호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되었고(Bradbury, Fincham, & Beach, 2000; Karney & Bradbury, 2000; Sweet & Moen, 2006),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Kenny, 1996).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다음 장(III-3)에서 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조사 자료 중 맞벌이 부모 총 631명과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직업군, 연령, 월소득 및 학력은 표 1과 같다. 특히 아버지는 사무종사자가, 어머니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 평균은 아버지 만 40.45세, 어머니 만 38.0세, 아동 만 7세이었다. 또한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0.72만원이었고, 부모 모두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맞벌이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직업 대분류	남편(%)	아내(%)		최소	최대	평균
미분류	1.0	0.0	남편 만연령(세)	29	55	40.45
관리자	4.0	1.3	아내 만연령(세)	27	53	38.00
군인	1.7	0.2	가구소득월평균(만원)	100	2000	520.7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9.8	42.8	학력	남편(%)	아내(%)	
사무종사자	25.5	26.0	중학교졸업	0.5	0.3	
서비스종사자	5.7	8.7	고등학교졸업	24.7	24.6	
판매종사자	9.2	12.0	전문대졸업	20.8	27.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	0.5	(3년제이하기능대학)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1.1	0.8	대학교졸업	43.4	39.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5	2.5	(4년제이상)			
단순노무종사자	2.9	4.4	대학원졸업	10.0	7.8	
무응답	4.3	0.8	무응답	0.6	0.0	
전 체	100	100	전체	100	100	

2. 연구 도구

1) 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shall과 Barnett(1993)가 개발한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

등(Work-family strains and gains) 척도 중 일-가족 갈등(work-family strain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등의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 .873, 어머니 .901이었다.

2)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세 요인 즉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중 아동패널에서 조사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등의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 .891, 어머니 .893이었다.

3)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한 척도를 국내에서 번역 및 표준화한 CBCL6-18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오경자, 김영아, 2010)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된 데이터($N=631$)는 모두 어머니에 의해 응답되었다. 이 척도는 총 120개의 문제행동척도 문항과 14개의 적응척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8개의 증후군 척도와 1개의 기타 척도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어떤 영역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지 나타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활용된 내재화문제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으로 구성되며, 외현화문제는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들은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있다” 등의 내재화문제 32문항,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등의 외현화문제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내재화문제 .874, 외현화문제 .889이었다.

3.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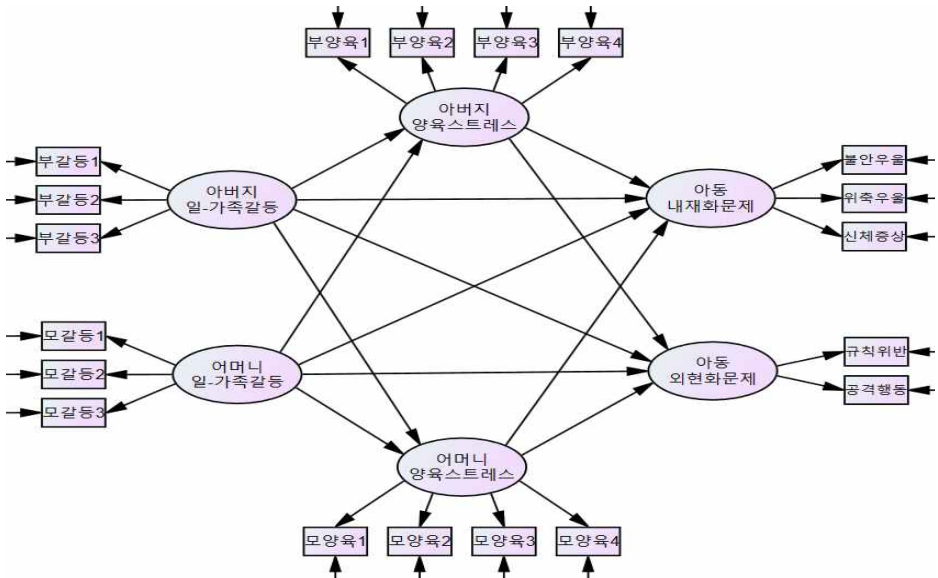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변인들의 기초통계분석으로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적용하여 각 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효과와 어머니효과를 검증하였다.

APIM은 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료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커플이 분석단위가 되며 커플의 수가 곧 표본의 크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PIM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인인 자기효과(actor effects)는 개인 내 심리 현상인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이며,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는 상대방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대인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관계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커플자료 분석에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

한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값 및 TLI, CFI, RMSEA 값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χ^2 값은 표본수에 민감하여 쉽게 자료를 기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력에 대해 좋은 지수로 알려진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더 활용한 것이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 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적절한 적합도, .1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로 해석된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또한 위계적 관계에 있는 두 경쟁 모형(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중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2 차이값($\Delta\chi^2$)과 자유도 차이값(Δdf)을 비교하였다. 특히 APIM을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변수값을 표준화시키지 않으면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화 점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Ledermann, Macho, & Kenny, 2011)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각 변인별 표준화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검증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있어서 부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등가제약모형과 최종모형과의 χ^2 차이검증을 각각 실시하였다. 넷째,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원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Bootstrapping 표본을 모수 추정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의 포함여부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처리를 위해 FIML(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일-가족 갈등과 양육스트레스의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지표는 개별 문항들을 묶어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성한 후 사용하였고, 아동의 내재화문제(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와 외현화문제(규칙위반, 공격행동)의 측정지표는 CBCL6-18 척도의 하위 요인들을 각각 사용하였다. 개별 문항들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추정해야 할 미지수의 수가 증가되어 다변량 정상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 기초 통계

본 연구에서는 기초분석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을 살펴보고, 측정변수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와 같이 모든 변수들은 대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개별 변수들의 왜도는 2, 첨도는 4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2>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6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아버지 일가짐 갈등1	아버지 일가짐 갈등2	아버지 일가짐 갈등3	어머니 일가짐 갈등1	어머니 일가짐 갈등2	어머니 일가짐 갈등3	아버지 일가짐 스페인	아버지 일가짐 스페인	아버지 일가짐 스페인	어머니 일가짐 스페인	어머니 일가짐 스페인	어머니 일가짐 스페인	어머니 스페인	불안 우울	위축 우울	신체 증상	규칙 위반	공격 행동		
2	.673**	1																		
3	.655**	.693**	1																	
4	.055	.126**	.042	1																
5	.058	.161**	.088*	.755**	1															
6	.100*	.188**	.113**	.678**	.684**	1														
7	.244**	.360**	.338**	.064	.094*	.097*	1													
8	.246**	.364**	.354**	.074	.103*	.088*	.684**	1												
9	.191**	.331**	.316**	.043	.092*	.062	.666**	.643**	1											
10	.311**	.361**	.357**	.080	.093*	.090*	.589**	.646**	.619**	1										
11	.159*	.228**	.201*	.189**	.208**	.214**	.341**	.273**	.308**	.280**	1									
12	.180*	.242**	.233**	.168**	.201**	.229**	.258**	.342**	.264**	.287**	.669**	1								
13	.139**	.189**	.195**	.148**	.186**	.217**	.279**	.303**	.401**	.298**	.662**	.649**	1							
14	.170**	.216**	.210**	.145**	.172**	.214**	.220**	.238**	.250**	.275**	.535**	.642**	.610**	1						
15	.142**	.148**	.097*	.098*	.077	.070	.082*	.089*	.137**	.142**	.176**	.212**	.252**	.245**	1					
16	.096*	.152**	.124**	.117**	.146**	.053	.119**	.106**	.149**	.094*	.228**	.207**	.229**	.158**	.532**	1				
17	.157**	.155**	.126**	.086*	.091*	.120**	.092*	.072	.111**	.151**	.146**	.175**	.224**	.173**	.471**	.324**	1			
18	.081*	.120**	.076	.100*	.181**	.089*	.100*	.084*	.113**	.144**	.218**	.266**	.217**	.265**	.469**	.381**	.334**	1		
19	.094*	.143**	.094*	.096*	.147**	.087*	.094*	.108**	.110**	.175**	.219**	.265**	.273**	.316**	.603**	.439**	.379**	.708**	1	
M	7.760	7.185	7.556	8.213	7.818	8.278	6.256	6.113	7.030	4.548	6.856	6.400	7.750	4.996	2.00	.78	.77	1.15	3.09	
SD	2.060	2.029	2.213	2.368	2.462	2.360	2.216	2.216	2.275	1.441	2.473	2.240	2.267	1.535	2.204	1.188	1.337	1.368	3.357	
왜도	-.023	.251	.135	-.029	.043	.020	.458	.311	-.052	.091	.400	.515	-.092	.267	1.585	2.132	2.564	1.668	1.769	
첨도	.177	.268	.136	-.404	-.656	-.251	.158	-.363	-.654	-.168	-.244	.219	-.279	.242	2.993	3.323	3.982	3.407	3.364	

*p<.05, **p<.01

2. 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아버지효과와 어머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PIM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TLI=.963, CFI=.971, RMSEA=.045로 양호하였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추정치를 살펴보면(표 4), 먼저 자기효과에서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477)와 어머니(.238)의 자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방효과에서는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의 상대방효과(.271)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효과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어머니효과(.316, .347)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만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보다 간명한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7개의 경로 즉,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의 상대방효과, 일-가족 갈등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아버지효과와 어머니효과, 일-가족 갈등이 외현화문제와 미치는 아버지효과와 어머니효과,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아버지효과 경로를 제거한 뒤 수정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연구모형과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Delta \chi^2(7, N=631)=3.849$, $p>.05$ 로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TLI, CFI, RMSEA 모두 수정모형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더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추정치 살펴보면(그림 2: 측정변수는 생략함),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효과는 .485, .224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상대방효과는 .276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어머니효과는 .327과, .366으로 나타났다.

<표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χ^2 차이검증
연구모형	298.859	134	.963	.971	.045(.038-.052)	
수정모형(최종모형)	302.708	141	.965	.972	.044(.037-.051)	$\Delta \chi^2(7)=3.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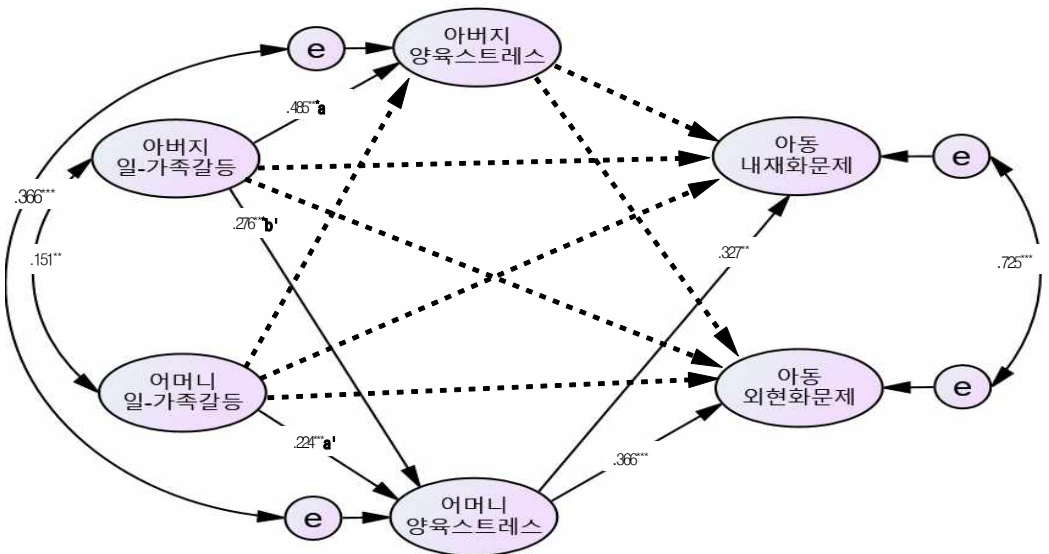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표 4> 연구모형의 경로추정치

경로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B	β	S.E.	t
일-가족 갈등 →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자기효과	.462	.477	.046	10.106***
어머니의 자기효과	.245	.238	.047	5.225***
아버지의 상대방효과	.048	.051	.040	1.190
어머니의 상대방효과	.285	.271	.049	5.864***
일-가족 갈등 → 내재화문제				
아버지효과	.054	.055	.051	1.059
어머니효과	.044	.042	.052	.845
일-가족 갈등 → 외현화문제				
아버지효과	.045	.046	.051	.877
어머니효과	.053	.055	.044	1.195
양육스트레스 → 내재화문제				
아버지효과	-.028	-.025	.068	-.408
어머니효과	.323	.316	.059	5.440***
양육스트레스 → 외현화문제				
아버지효과	-.025	-.025	.057	-.440
어머니효과	.320	.347	.052	6.138***

* $p < .05$, ** $p < .01$, *** $p < .001$

N=630, B: 비표준화된 추정치, β : 표준화된 추정치, S.E.: 표준오차



[그림 2] 최종모형의 경로추정치

3.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와 부모 간 차이 검증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와 부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가제약을 가하여 살펴보았다. 등가제약을 가한 경로는 위의 그림 2과 같이, 자기효과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각각 자기의 양육스트레스에 이르는 경로이며, 상대방효과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이르는 경로이다. 이와 같이 2번의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과 최종모형과의 χ^2 차이검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각각 양육스트레스에 이르는 자기효과(등가제약1)에서는 부모 간 차이가 나타나($\Delta \chi^2(1)=14.292, p<.001$)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족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이르는 상대방효과와 자기효과(등가제약2)에서는 부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Delta \chi^2(1)=.742, p>.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종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χ^2 차이검증
최종모형	302.708	141	.965	.972	.044(.037-.051)	
등가제약1 (a=a')	317.000	142	.963	.969	.046(.039-.052)	$\Delta \chi^2(1)=14.292^{***}$
등가제약2 (a=b')	303.450	142	.966	.972	.044(.037-.051)	$\Delta \chi^2(1)=.742$

* $p<.05$, ** $p<.01$, *** $p<.001$

주. a=a': (자기효과)일-가족 갈등 → 양육스트레스 등가제약

a=b': (상대방효과와 자기효과)일-가족 갈등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등가제약

4.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원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Bootstrapping 표본을 모수 추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였다. 일-가족 갈등(독립변인)과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종속변인)의 관계에서 간접효과의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여부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매개변인)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표 6),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beta=.090, .101, p<.05$)

가 유의미했으며,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beta=.073, .082, p<.05$)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모형의 총효과 및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경로			효과의 종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B (95%CI)	β	B (95%CI)	β	B (95%CI)	β
아버지	어머니	아동	.097 (.059 ~ .155)	.090	-	-	.097 (.059 ~ .155)	.090
일-가족갈등	양육스트레스	내재화문제						
아버지	어머니	아동	.098 (.054 ~ .145)	.101	-	-	.098 (.054 ~ .145)	.101
일-가족갈등	양육스트레스	외현화문제						
어머니	어머니	아동	.077 (.044 ~ .124)	.073	-	-	.077 (.044 ~ .124)	.073
일-가족갈등	양육스트레스	내재화문제						
어머니	어머니	아동	.078 (.044 ~ .121)	.082	-	-	.078 (.044 ~ .121)	.082
일-가족갈등	양육스트레스	외현화문제						

N=631. Bootstrapping 표집의 개수는 10,000개, B: 비표준화된 추정치, β : 표준화된 추정치

V. 논의 및 결론

최근 맞벌이 부부들은 일과 가정 두 영역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다중역할의 과업으로 인하여 일-가족 갈등을 크게 경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e.g., Gilbert & Kearney, 2006). 이에 일과 가정 두 영역 간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일-가족 갈등이 개인 혹은 부부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e.g., Cooklin et al., 2014). 그러나 최근 부모가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이 양육과 관련되어 아동의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Matias et al., 2017)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구조적 관련성에 대해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살펴볼지 못하였다(Vieira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APIM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상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일-가족 갈등과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APIM을 적용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63, CFI=.971, RMSEA=.045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7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이를 제거한 수정모형과 연구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통해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에서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효과는 각각 .485, .224이었고 어머니의 상대방효과는 .276

이었으나 아버지의 상대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어머니효과는 .327, .366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e.g., Shreffler, Meadows, & Davis, 2011; Guelzow et al., 199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Baker et al., 2003; Briggs-Gowan et al., 2001) 연구결과와 일정부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효과에서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만 나타났고, 아버지·어머니효과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어머니효과만 나타난 점은 Vieira 등(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Vieira 등(2016)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오히려 아버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양육의 질이 오히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양육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Cummings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즉 아버지의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아버지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의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더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동양 여성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로 인하여 남성보다 관계에서의 조화와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정옥분, 곽경화, 2003; 정진경, 1990) 어머니들이 일과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배우자에게 표현하거나 전가시키지 않고 억압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아동문제행동에 미치는 아버지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일-가족 갈등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이것이 아동의 적응문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느끼더라도 주양육자로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관여나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남성의 경우 일에서의 역할이 가정에서의 역할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 일에 덜 관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imon, 1995).

결국 위의 논의들을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과 양육경험, 그리고 아동문제행동의 관련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주양육자로서 어머니들이 더 깊이 책임을 느끼고 관여하고

있으며, 부모 공동의 책임인 양육문제가 어머니의 방향으로 더 전이되고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대한 응답자(N=631) 모두가 어머니였다는 점도 이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최종모형의 경로치를 바탕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와 부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가제약을 가하여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부모 간 차이가 나타나($\Delta \chi^2(1)=14.292, p<.001$)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특히 성역할갈등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성역할기대와 관련하여 일과 가족 간 갈등이 남성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부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으며(O'Neil, 1981) 특히 개인은 자신이 내면화한 성역할의 기대와 반대되는 성역할을 이행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Pleck, 1977). 특히 한국과 같이 동양 사회의 경우 서구 사회에 비해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강조되며(Buehler & O'Brien, 2011; Frone, Russell, & Cooper, 1992) 따라서 남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의 책임 소재로 여겨지는 양육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와 자기효과에서는 부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Delta \chi^2(1)=.742, p>.05$)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이 각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가정과 양육의 영역에서 배우자의 스트레스와 갈등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으며(Nolen-Hoeksema, 2000) 특히 배우자의 갈등 상태가 여성 자신의 스트레스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Demerouti, Bakker, & Schaufeli, 2005).

셋째, 최종모형에서 부모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beta=.090, .101, p<.05$),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beta=.073, .082, p<.05$)가 유의하였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 간 관계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완전매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변화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고 있지만, 부모의 일-가족 갈등은 모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서만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자들은 일-가족 갈등 문제는 배우자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으며(하오령, 권정혜, 2006; Roxburgh, 1999),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높으며(Nolen-Hoeksema, 2000)

특히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과 스트레스가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Cinamon et al., 2007)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위의 매개분석 결과는 먼저, 맞벌이 부모가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 문제가 부모 상호 간 관련성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변화된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는 생계부양과 아동양육에 대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매개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임을 함의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이후의 건강한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아동기라는 중요한 시기를 겪는 과정에서(Macnab, 2003), 부모가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가족 전체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담과 건강의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임을(Halpern, 2005)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가족 갈등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가족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유발하는 성별 역할에서의 모순된 상태를 맞벌이 부모가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교육적 혹은 상담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도와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과도한 당위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인지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업여성이 아동양육의 책임을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전가할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당위성을 재구조화시켜 약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다중역할과 양육 수행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주는 것도(Weitzman & Fitzgerald, 1996)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현실적인 태도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가족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개인적 문제와 사회구조적, 문화적 문제가 결부되어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아동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매개변인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Pederson & Vogel, 2007).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김기현, 강희경, 1997)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가 경청하고 공감해주어야 한다.

또한 심리상담과 부모교육의 제공을 통해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직장 여성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사회적, 정책적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족친화정책(예. 육아휴직자 인사고과 평균등급제도, 계열사협력사와 직장어린이집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고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서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경험 수준 혹은 성별분업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홍승아 등, 2009).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 모두가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과 양육 및 아동문제의 상호관련성을 상호의존적, 가족역동적 관점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의의가 있다. 즉 이러한 연구는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각 구성원의 문제를 독단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각 문제들이 상호역동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맞벌이 부부는 대졸자 혹은 전문가, 사무종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참여자가 편포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대상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가족 갈등 척도는 오래 전에 개발된 척도로 최근 맞벌이 부부와 고학력 취업여성의 증가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최근에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시간 등 관련 변인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모형은 다수의 선행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설정되었으나, 맞벌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나 우울 등 부정적 정서가 일 또는 가정 영역에 지속되어 영역 간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MacDermid, Seery, & Weiss, 2002)을 감안하면,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수정하여(예. 양육스트레스→일-가족 갈등) 재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가족 갈등은 그 원천 혹은 상황에 따라 직장의 일이 가정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WIF(work interference with family)와 가정의 일이 직장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FIW(family interference with work)의 두 가지 형태를 지닌다(Frone et al., 1992).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두 형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나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유형은 변화되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역동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이 양육문제 및 아동적응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밝힘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남숙, 정진경, 박광배(1997). 한국 성역할 검사의 수정점수 및 분류기준 산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77-90.
- 김성국, 박수연, 이현실(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267-275.
- 박주희(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41-62.
- 여성가족부(2014). 2014가족친화인증기업우수사례집.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 11-138000-00358-10.
- 연은모, 최효식(2018). 일-양육 양립시 이점과 갈등,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497-523.
- 오경자, 김영아(2010). **한국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휴노.
- 이다운(2003).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선애(2012). 양육스트레스와 참여 동기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참가 후 양육태도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2018).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3), 141-156.
- 정옥분,곽경화(2003).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1), 1-20.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 최윤정, 김계현(2009). 여성 진로 상담 관점에서 본 다중역할 (일-가족) 균형의 구성개념 및 측정 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찰. **상담학연구**, 10(1), 365-384.
- 하오령, 권정혜(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 건강과 역할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675-696.
- 한영주, 박지아, 손난희 (2013). 기혼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의 관계: 대처 방식과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2), 1443-1468.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승아, 이인선(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chenbach, T. M., & Rescorla, L. (2001). *Manual for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Burlington, VT.
- Allen, T. D., Herst, D. E. L., Bruck, C. S., & Sutton, M. (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to-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2), 278-308.
- Aryee, S., Srinivas, E. S., & Tan, H. H. (2005). Rhythms of life: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balance in employed par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132-146.
- Baker, B. L., McIntyre, L. L., Blacher, J., Crnic, K., Edelbrock, C., & Low, C. (2003). Pre-school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 Behaviour problems and parenting stress over ti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4-5), 217-230.
-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7-498.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lair-Loy, M., & Wharton, A. S. (2004).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nstraints on work-family policy use: Corporate flexibility policies in a global firm. *Sociological Perspectives, 47*(3), 243-267.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Briggs-Gowan, M. J., Carter, A. S., Skuban, E. M., & Horwitz, S. M. (2001). Prevalence of social-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a community sample of 1-and 2-year-old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7), 811-819.
- Bronfenbrenner, U. (1989). *The developing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aradigm lost or paradigm regained* In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 Bronfenbrenner, U., & Morris, P. (1998). Ecological processes of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Theoretical issues, 1*, 993-102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uchanan, C. (2013). *How work-family conflict relates to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Emporia State University, Emporia, Kansas, USA.
- Buehler, C., & O'Brien, M. (2011). Mothers' part-time employment: associations with mother and family well-be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6), 895-906.
- Cinamon, R. G., Weisel, A., & Tzuk, K. (2007). Work-family conflict within the family: Crossover effects, perceived parent-child interaction quality, parental self-efficacy, and life-role attributio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 79-100.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ook, W. L., & Snyder, D. K. (2005). Analyzing nonindependent outcomes in couple therap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1), 133-141.
- Cooklin, A., Martin, A., Strazdins, L., Nicholson, J., & Westrupp, E. (2014). Maternal work-family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Reciproc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44), 107-126.
- Cornwell, B. (2013). Switching dynamics and the stress proces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6*(2), 99-124.
- Costigan, C. L., Cox, M. J., & Cauce, A. M. (2003). Work-parenting linkages among dual-earner couples 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397-408.
- Crouter, A., Bumpus, M., Head, M., & McHale, S. (2001). Implications of overwork and overload for the quality of men's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404-416.
- Duxbury, L. E., & Higgins, C. A. (2001). *Work-life balance in the new millennium: Where are we?: Where do we need to go?* (Vol. 4). Ottawa, ON: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 Duxbury, L., & Higgins, C. (1991). Gender differences in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1), 60-74.
- Eby, L., Casper, W., Lockwood, A., Bordeaux, C., & Birinley, A. (2005). Work and family research in IO/OB: Content analysi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1980-2002).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124-197.
- Edwards, J. R., & Rothbard, N. P. (2000). Mechanisms linking work and famil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family constru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4), 789-816.

25(1), 178-199.

- Ford, M. T., Heinen, B. A., & Langkamer, K. L. (2007). Work and family satisfaction and conflict: a meta-analysis of cross-domain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57-80.
- Frone, M. R., Russell, M., & Barnes, G. M. (1996). Work-family conflict, gender, and health-related outcom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 57-69.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78.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7). Relation of work-family conflict to health outcomes: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of employed parent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0*(4), 325-335.
- Geurts, S. A., Kompier, M. A., Roxburgh, S., & Houtman, I. L. (2003). Does work-home interferen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oad and well-be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32-559.
- Gilbert, L. A., & Kearney, L. K. (2006). Sex, gender, and dual-earner famil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for women.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for Women, 45-74*.
- Goldberg, W. A., Clarke-Stewart, K. A., Rice, J. A., & Dellis, E. (2002). Emotional energy as an explanatory construct for fathers' engagement with their infant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4), 379-408.
- Gottfried, A., & Gottfried, A. (2006). A long-term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maternal and dual-earner employment in children's development: The Fullerton longitudinal stud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9*, 1310-1327.
- Greenberger, E., O'neil, R., & Nagel, S. K. (1994). Linking workplace and homeplace: Relations between the nature of adults' work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90-1002.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 Guelzow, M. G., Bird, G. W., & Koball, E. H. (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91*, 151-164.

- Halpern, D. F. (2005). Psychology at the intersection of work and family: Recommendations for employers, working families, and policymakers. *American Psychologist*, 60(5), 397-409.
- Hill, E. J., Hawkins, A. J., Martinson, V., & Ferris, M. (2003). Studying" working fathers": Comparing fathers' an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fit, and adaptive strategies in a global high-tech company. *Fathering*, 1(3), 23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rney, B. R., & Bradbury, T. N. (2000). Attributions in marriage: State or trait? A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95-309.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WW Norton & Company.
- Larson, R. W., & Almeida, D. M. (1999). Emotional transmission in the daily lives of families: A new paradigm for studying family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99, 5-20.
- Ledermann, T., Macho, S., & Kenny, D. A.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4), 595-612.
- Lenaghan, J. A., Buda, R., & Eisner, A. B. (2007).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work and family conflict.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2007, 76-94.
- Lim, V. K., & Kim, T. Y. (2014). The long arm of the job: Parents' work-family conflict and youths' work centrality. *Applied Psychology*, 63(1), 151-167.
- MacDermid, S. M., Seery, B. L., & Weiss, H. M. (2002). An emotional examination of the work-family interface. In R. Lord, R. Klimoski, & R. Kanfer (Eds.), *Emotions in the workplace*(pp.402-427). San Francisco: Jossey-Bass.
- Macnab, J. J. (2003). Healthy development in childhood: The role of child factors, family factors, and parenting practices in the prediction of cognitive competence and behavioural dysfunction at school ag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071-6071.
-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Matias, M., Ferreira, T., Vieira, J., Cadima, J., Leal, T., & Matos, P. (2017). Work-family conflict, psychological availability,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Spillover and crossover in dual-earner families. *Personal Relationships, 24*(3), 623-639.
- Michel, J. S., , B. B. (2011). AntecededeKotrba, L. M., Mitchelson, J. K., Clark, M. A., & Baltesnts of work-family conflic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2*(5), 689-725.
- Nielson, T. R., Carlson, D. S., & Lankau, M. J. (2001). The supportive mentor as a means of reducing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3), 364-381.
- Nolen-Hoeksema, S. (2000). The role of rumination in depressive disorders and mixed anxiety/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504-511.
- Nomaguchi, K. M. (2009). Change in work-family conflict among employed parents between 1977 and 1997.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1), 15-32.
- O'Neil, J. M.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Pleck, J. H. (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4), 417-427.
- Repetti, R. (1994). Short-term and long-term processes linking job stressors to father-child interaction. *Social Development, 3*, 1-15.
- Roxburgh, S. (1999). Exploring the work and family relationship: Gender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parenthood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0*(6), 771-788.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chieman, S., McBrier, D. B., & Van Gundy, K. (2003). Home-to-work conflict, work qualities, and emotional distress. *Sociological Forum, 1*(18), 137-164.
- Shreffler, K. M., Meadows, M. P., & Davis, K. D. (2011). Firefighting and fathering: Work-family conflict, parenting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Fathering, 9*(2), 169-18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mon, R. W. (1995). Gender, multiple roles, role mean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2-194*.
- Stewart, W., & Barling, J. (1996). Fathers' work experiences effect children's behaviors via job-related ffect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 221-

232.

- Sweet, S., & Moen, P. (2006). Advancing a career focus on work and the family: Insights from the life course perspective. In M. Pitt-Catsouphes, E. E. Kossek, & S. Sweet. (Eds.), *The work and family handbook: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and approaches* (pp. 189-208). Mahwah, NJ: Erlbaum.
- Thompson, L., & Walker, A. J.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45-871.
- Tucker, L.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Vieira, J., Matias, M., Ferreira, T., Lopez, F., & Matos, P. (2016). Parents' work-family experience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 mediating rol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 419-430.
- Vieira, J., Matias, M., Lopez, F., & Matos, P. (2016). Relations between work-family dynamics and parenting experiences: *Dyadic analysis of dual-earner couples*. *Work and Stress*, 30, 243-261.
- Volling, B., Kolak, A., & Blandon, A. (2009). Family subsystem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In S. Olson & A. Sameroff (Eds.), *Biopsychosocial regulatory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pp. 238-257).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 K., Leitao, M., & Ramos, V. (2011).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In U. Uhlendorff, M. Rupp & M. Euteneuer (Eds.), *Wellbeing of families in future Europe—Challenges for research and policy* (pp. 219-236). Brussels, Belgium: European Commission, Family Platform.
- Weitzman, L. M., & Fitzgerald, L. F. (1996).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scales to asses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3), 269-284.
- West, S., Finch, & Curran, P.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1995, 56-75.
- Wieland, N., Green, S., Ellingsen, R., & Baker, B. L. (2014). Parent-child problem solving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or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8(1), 17-30.

Zamarripa, M. X., Wampold, B. E., & Gregory, E. (2003).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anxiety: Clarification and generalizability to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33-338.

Zhang, J. (2016). *Work-family conflict and child well-being: when work-family conflict really hits hom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Houston, Texas, USA.

* 논문접수 2018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9월 7일 / 게재승인 2018년 9월 17일

* 하문선: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홍익대학교에서 상담심리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moonsunha@cdu.ac.kr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Parenting Stress on Dual-income Couples, and the Internalization-externalization of Childre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Ha, Moon-Su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utual influence of work-family conflict, parenting stress on dual-income couples, and internalization-externalization problem of children. The results of analysis of actor-effect and partner-effect by applying an actor -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are as follows. First, the actor-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 for both father and mother. On the other hand, the partner-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the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 only for mother in the final model. In addition, the maternal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the internalization-externalization problem of children were significant. Second, the actor-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parenting stress was higher for father than for mother in the equality constraint model.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partner-effect of father's work-family conflic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actor-effect of mother's work-family conflic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Finally,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the internalization-externalization problem of children are as follows. For both father and mother, the full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the internalization-externalization problem of childre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family dynamic relationships by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work-family conflict experienced by dual-income parents, parenting and child problems more intensively. Th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dual-income parents, Work-family conflict, parenting stress, children, internalization problem, externalization problem, APIM